



KEPCO E&C Family

2020 11+12

봉사에 참여하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각종 바이러스 질병들을
잘 이겨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전국의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합시다.
이번에도 코로나19 잘 이겨 냅시다. 힘내라! 대한민국!



2020 11+12

KEPCO E&C Family



통권 461호 2020년 11,12월호(격월간)

발행인 이배수
발행일 2020년 11월 1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울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메일 miru@kepco-enc.com

인 쇄 동아인쇄(주)(054-433-4454)



여승(부분 발췌) / 백석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넙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다.

04 명사칼럼

코로나 시대의 성찰

06 Brife News

김천사랑카드 만들기
추석맞이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청백리 선정 및 임명장 수여
김천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과 청렴 정책 협의체 구축
부당업무지시 사례 연구를 위한 전사 워크숍 개최
자회사 '한전기술서비스'와 인권경영협약 체결
체코원전 수출지원을 위한 APR1000 설계특성 IAEA 홍보
원전해체 산업육성 중소기업과 MOU 체결
대우조선해양과 해양 원전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약수해상풍력 실증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
원자로설계개발단, 금산군 수해 복구 지원금 전달
집중호우, 코로나 19피해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 실시
지역 농가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력판매 지원
2020년 관리전문교육 기본과정 비대면 교육 실시
청렴인권 PLUS 문화제 실시

10 이달의 한기인

품질안전처 백승익 부장

12 팀소개

에너지신사업본부 신사업개발처 해외개발팀



14 포토에세이

새로운 홍보전시물을 소개합니다!

16 가족 탐방

계측제어설계그룹 이영준 부장

18 Project & Tech

중형원전 APR 1000
캐나다 달링튼 원전기자재 수출

22 직원 참여 마당

아찔한 공중산책

23 이달의 한컷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24 세계도시탐방

불편한 낭만과 천국의 바다가 있는 곳 - 쿠바

28 칭찬합시다

김환식 차장/장재엽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0 Shall We Meet?

구내식당 영양사 박슬아



32 만화평

쥬 : 한 생존자의 이야기

34 나의 취미

뉴에이지, 편안하고 경쾌하면서도 아름답다

36 맛집 탐방

직지사 부일식당 산채정식

38 술익는 마을 : 우리 술을 찾아갑니다

500년 전통을 이어 온 문경의 대표주 호산춘

40 직원추천 지역탐방

다람쥐가 뛰어노는 국립 김천 치유의 숲

42 협력회사 소개

세일종합기술공사

44 Culture

교양 『규칙없음』의

46 사보기획이야기

독자와의 수다

코로나 시대의 — 성찰



이 광 복

- 소설가·한국문인협회 이사장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사
- 6·15민족문화인남측협회 대표회장
- 국립한국문학관 이사

새해 들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약칭 코로나19)이 지구촌을 급습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속절없이 쓰러졌다. 이 역병의 유행은 현재진행형으로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앞이 캄캄하다.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약 개발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희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이 더욱 크다. 하루 속히 명약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페스트, 장티푸스, 콜레라, 말라리아, 사스, 메르스 등 여러 전염병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전파 속도 등 여러 측면에서 종래의 다른 유행병들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사람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심지어 무증상 상태로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니 방역 당국과 의료진이 더욱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일찍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던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이렇게까지 위협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사실 우리는 그 동안 우주와 지구와 자연에 대한 예의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이는 선진국과 부유층일수록 더 극심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주만물과 대자연의 질서에 역행했다. 우주에 상처를 입히고, 지구를 괴롭히고, 자연을 무참히 파괴했다.

선진국은 후진국보다, 부유층은 빈곤층보다 쓰레기를 훨씬 더 많이 쏟아냈다. 그 결과 생태계 교란은 물론이려니와 환경이 극도로 오염되었다.

선진국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 공간을 어지럽혔다. 오존층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수명을 마친 각종 인공위성들이 우주에서 정처없이 떠돌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더 이상 우주의 쓰레기를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오죽하면 최근에는 여러 선진국들이 마침내 우주 청소를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에 나섰다. 이 사업은 벌써부터 유망 업종으로 떠올라 세계 기업가들 사이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구는 한 군데도 온전한 데가 없다. 땅을 파헤치고, 바다를 메우고, 강물을 막고, 지하수의 수맥을 끊고, 콘크리트로 마천루를 쌓고, 숨 쉬는 대지 위에 아스팔트로 칠갑을 하고, 공장 굴뚝과 자동차 공무니를 통해 유독가스 같은 매연을 내뿜고... 그런가 하면 땅속 깊이 구멍을 뚫어 천연가스와 석유 등 각종 광물을 채굴하고 있다. 이 같은 자연 파괴 행위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구가 몸살을 앓다 못해 중병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주와 지구가 무참히 파괴되는 마당에 자연인들 어찌 배겨날 것인가. 인간들이 분별없이 버린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환경오염은 이미 오래 전에 위험수위를 훌쩍 넘어섰다. 기후 변화도 심각하다. 해마다 세계 도처에서 태풍과 폭우와 해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인류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런 재해와 함께 물고기들의 폐죽음, 동식물의 멸종 등 자연의 비극은 끝이 없다. 놀랍게도 죽은 고래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폐품을 비롯하여 나일론 어망 등 온갖 잡동사니가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그렇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

다는 엄연한 사실을 상기할 때 코로나19의 내습은 여러 측면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어쩌면 이 괴질이야말로 우주와 지구와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반격이거나 강력한 경고일 수 있다. 우주와 지구와 자연이 참고 또 참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러 이처럼 끔찍한 경종을 울리는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오늘의 이 재앙을 자초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코로나19는 우리의 문화에 거대한 변화를 몰고 왔다. 생활 양태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새로운 행동준칙이 되었다. 악수 대신 '주먹 인사'가 등장했다. 정부 주관의 국경일 행사가 대폭 축소되었다. 예식장에 하객이 없고, 장례식장에 조문객의 발길이 끊겼다. 음식점에도 고객이 부쩍 줄었다. 공연장과 경기장 또한 예외가 아니다. 야구 축구 농구 등 인기 종목이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 같은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가장 먼저 서민경제가 무너졌다. 영세 상공인들은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난다. 이렇듯 코로나19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동안 서민들의 삶이 필진해짐으로써 사회 전체의 시름이 깊어간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우려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호흡을 고르면서 자신을 엄숙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자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자는 뜻이다. 그 각성의 중심에 바로 우주와 지구와 자연에 대한 외경심이 있다.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우주 만물의 질서를 경건히 존송하는 가운데 지금보다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덜 버릴 때 코로나19와 같은 역질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S&C**

KEPCO E&C N e w s

김천사랑카드 만들기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김천 본사 1층 로비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1인 1 김천사랑카드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회사는 김천시청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의 선불형 지역사랑상품권인 ‘김천사랑카드’ 발급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9일에는 이배수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솔선수범하여 ‘김천사랑카드’를 직접 발급받았고, 9일까지 누적 천여 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카드를 발급받는 등 큰 관심 속에 「1인 1 김천사랑카드 만들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김천사랑카드 만들기

추석맞이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김천 본사에서 김천농업협동조합 및 영동군청과 공동으로 추석맞이 지역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임직원들의 지역 특산물 구매 장려를 통해 태풍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수 농산물 판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사회적기업협동조합, 김천농업협동조합, 김천시와 영동군 지역 8개농가가 참여하여 사과, 배, 샤인머스켓, 와인, 수제 오란다 등 다양한 농특산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여 임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추석맞이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청백리 선정 및 임명장 수여

9월 4일 정일순 상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2차 청백리’ 선정자로 원자력본부 김대중 부장을 선정하여 임명장 및 기념패를 수여하였다. 이번 청백리 수상자는 평소 업무를 투명하고 적법 절차를 바탕으로 수행하고, 사내 봉사활동, 헌혈행사 참여 등 사내 청렴문화 정착에 적극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다. 회사는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청렴윤리 문화를 실천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청렴 조직문화 제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청백리 선정 및 임명장 수여

김천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과 청렴 정책 협의체 구축

9월 21일 경영회의실에서 상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천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과 청렴 정책 협의체 구축을 위한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천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의 실질적이고 가치있는 생활 속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김천시 참여단 또한 김천시에 대하



김천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과 청렴 정책 협의체 구축



부당업무지시 사례 연구를 위한 전사 워크숍 개최

여 다양한 정책 제안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와 공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에 대한 의견 교류 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다양한 발전 의견을 수렴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부당업무지시 사례 연구를 위한 전사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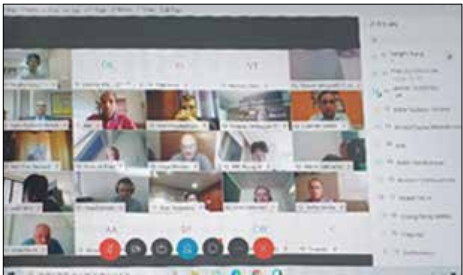
8월 25일 김천 본사에서 2020년도 청렴도 최우수 등급 달성 및 직장 내 갑질근절을 위한 ‘부당업무지시 사례 연구 전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인권선도그룹, 각 본부단 선정 엔지니어 및 주요사업 PA 등 각 직급, 직군 및 본부(단)을 대표하는 직원 약 30여명이 참석하여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직장 내 부당업무지시 사례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자회사 ‘한전기술서비스’와 인권경영협약 체결

자회사 ‘한전기술서비스’와 인권경영협약 체결

9월 15일 김천 본사에서 자회사인 한전기술서비스와 인권경영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전기술서비스 이명호 사장, 혁신성장실 오인승 실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향후 2년간 인권경영 문화 확산, 사회적 가치 실현, 근로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양사간 상호 교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이러한 인권경영 상호 협약이 지역사회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체코원전 수출지원을 위한 APR1000 설계특성 IAEA 홍보

체코원전 수출지원을 위한 APR1000 설계특성 IAEA 홍보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영상으로 진행된 『원전 안전기준 기술지침』 개발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에 참가했다. 회사는 ‘APR1000의 심층방어 설계’와 ‘대량 방사능방출의 실질적배제 입증’에 대해 방사선방호 및 중대사고 전문가인 강상호 부장과 김병조 차장이 발표하였다. 회사는 IAEA 등 국제회의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APR1000 설계 우수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인지도를 향상시켜 체코를 포함한 유럽등지에 성공적인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원전해체 산업육성 중소기업과 MOU 체결

8월 26일 뉴디컴 및 한국씨엠씨와, 9월 4일은 나일프렌트와 상호협력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이루어졌다. 지난 6월 26일 회사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MOU 체결

KEPCO E&C N e w s

는 울산시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참여업체인 나일프렌트와 MOU를 체결하고 정부 기술개발과제 공동참여 추진 및 기술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해양 원전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9월 24일 대우조선해양과 해양 원전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력기술원 염학기 원장과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원 최동규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우리회사의 세계적인 원전설계와 건설기술, 대우조선해양의 다양한 선박 건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해양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발굴, 프로젝트 공동수행 등이다. 본 협정을 계기로 BANDI-60을 탑재한 해양부유식 원전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해양 원전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약수해상풍력 실증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

약수해상풍력 실증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

10월 13일 현대스틸산업, 케이베츠와 약수해상풍력 실증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스틸산업 본사에서 진행되었으며, 김동규 에너지신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현대스틸산업 이석장 대표이사, 케이베츠 지광습 대표이사 등 각 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약수 해상풍력 실증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 및 그린뉴딜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반을 제공함은 물론, 해상풍력사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풍력 산업의 시장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로설계개발단, 금산군 수해 복구 지원금 전달

원자로설계개발단 참사랑봉사단은 지난 8월 20일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에 수해 복구 지원금 5백만원을 전달하였다. 금산군은 우리 나라 대단위 인삼재배 지역으로 이번 집중호우 및 용담댐 방류로 인하여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침수된 인삼 및 삼막 등의 시설물 철거 등 농경지 복구에 대한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박상규 제원면장은 우리 회사의 지역사회 공헌 노력과 수해복구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원자로설계개발단, 금산군 수해 복구 지원금 전달



집중호우, 코로나 19피해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 실시



지역 농가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력판매 지원



2020년 관리전문교육 기본과정 비대면 교육 실시



청렴인권 PLUS 문화제 실시

집중호우, 코로나 19피해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 실시

8월 24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극복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체온 측정, 손 소독 등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하였으며, 이날 하루 임직원 및 지역주민 등 총 105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지역 농가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력판매 지원

9월 2일 지역 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김천시 증산면 황항리, 대덕면 추량2리, 부항면 하대리 3개 자매결연마을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마치고 한국전력공사 김천시사와 전력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사업은 우리회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정부의 지역상생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에너지 기술회사로서의 정체성을 살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해당 농가들의 실질적인 수익에 기여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2020년 관리전문교육 기본과정 비대면 교육 실시

9월 15일에서 17일까지 입사 2~4년차에 해당되는 사무직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필수과정인 관리전문교육 기본과정을 시행하였다. 관리전문교육 기본과정은 회사 경영 및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기획업무의 이해, 사업행정 개요 등 총 9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나라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각 교과목별 사내강사가 회사 내 별도 공간에서 강의를 제공하고 교육대상자는 대부분 재택에서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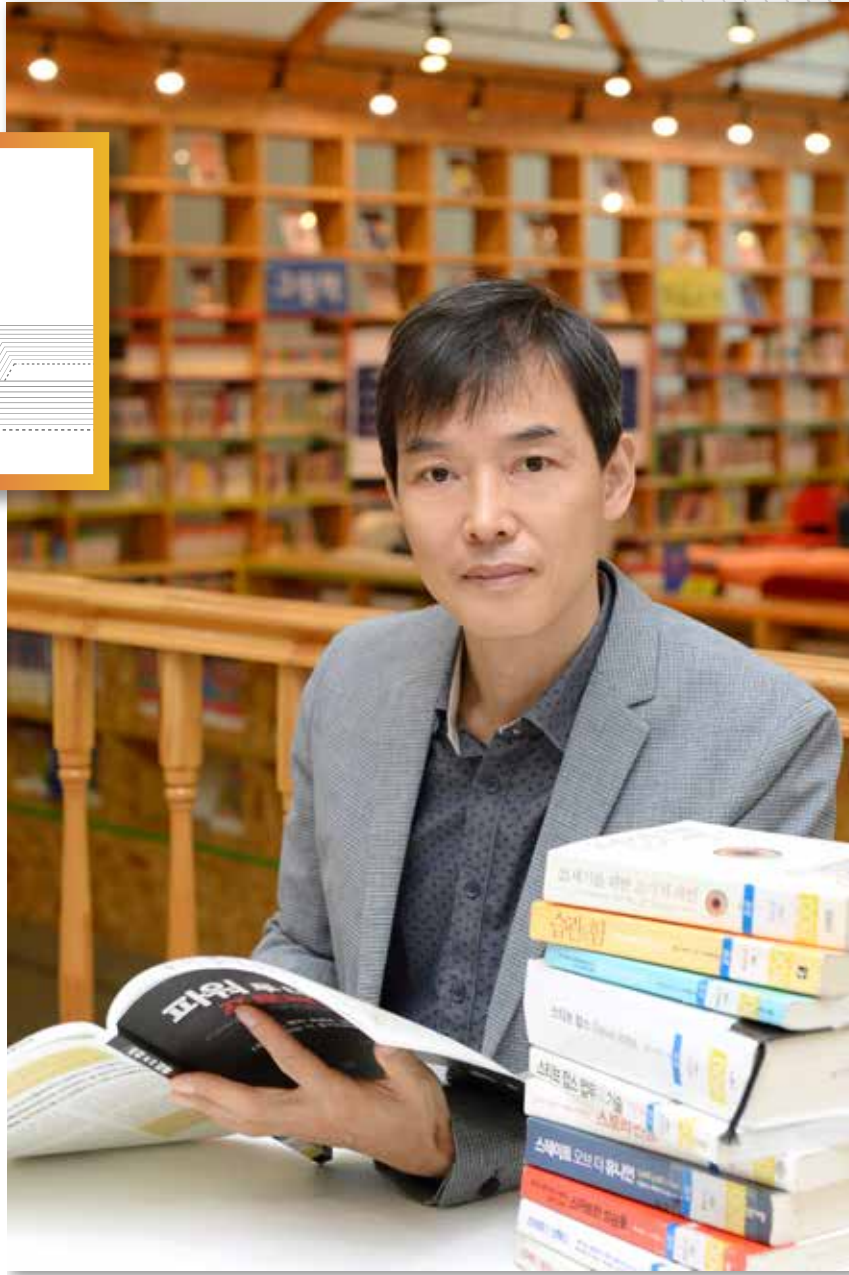
청렴인권 PLUS 문화제 실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청렴인권 PLUS 문화제가 실시되었다. 이번 행사는 청렴/인권/갑질근절 인식 제고와 청렴한 일터를 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영진이 솔선수범하여 생활 속 청렴을 시행하기 위한 청렴 스티커/포토존 이벤트와 함께 깨끗하고 청렴한 한가위를 위한 청렴윤리 강조기간 캠페인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직원뿐만 아니라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SNS 청렴퀴즈, 온라인 청렴 전시회를 운영하여 청렴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E&C**

품질안전처

백승익 부장

위대한 개츠비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감지하는 정교한 기계에 연결된 사람이다. 자신의 내부에 일종의 지진계를 가진 사람, 오감이 발달하고 판단과 결정을 직관적으로 내리는 백승익 부장을 만났다. 측면에서 보면 날씬한 체형에 말의 스피드가 빠르다. 즉문즉답에 능한 스타일에서 강의를 듣는 느낌도 들었다. 인터뷰 도중 알아보니 대내외에서 품질관련 강사로 활동 중이다.



먼저 백 부장은 QC(Quality Control)에서 QA(Quality Assurance)로 빠르게 전환하다가 다시 진화하여 지금은 품질경영으로 그 보폭이 넓어지고 빨라졌다는 설명을 해주었다. 요즘은 기업의 목적, 조직, 활동에도 품질개선이 전사적 노력과 함께 접목되는 추세라고 한다. 예전에는 요건(requirements)의 충족 여부만 따졌는데 지금은 고객만족, 사전 예방조치까지 중시된다. 정의(definition)를 무척 강조하는 것 같다고 질문하였다.

“모든 품질관련 문서에서 가장 앞머리, 서론의 정의가 핵심입니다. 그 정의로서 범위가 정해지고, 정의와 범위를 간과하면 의사 소통조차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그림으로 앞뒤를 맞출 수 없잖아요.”

백 부장의 반복되는 키워드에는 ‘시스템’과 ‘프로시저’가 빈출 1위에 올랐다. 아무래도 품질보증은 개인의 자질이나 실수보다는 시스템적 접근 방식, 시스템적 사고에 익숙한 업무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제가 97년도에 입사했어요. 그 해를 아시지요? IMF 사태가 일어난 연도. 그 이후 7년간 후배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팀의 막내는 이것저것 조금씩 온갖 업무를 지원하잖아요. 그때 밑바닥부터 기초를 다졌다고 생각해요.”



회사의 품질보증 역량이나 수준을 물어보았다. “원자력 분야를 예로 들면, 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한전기협회 같은 외부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도 꽤 있구요.” 좁고 제한된 영역만 깊이 아는 전문가, 많은 분야를 조금씩 아는 다방면의 전문가, 이는 모순적 두 가지 측면이다. 그러나 ‘위대한 개츠비’에서는 “인생은 결국 하나의 창문으로 보아야 더욱 성공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떠오른다. 역설적으로, 박학다식한 사람은 한 분야만 깊이 파고든 전문가라고 피츠제럴드는 말한다.

백 부장은 기계공학 전공자로 줄곧 품질 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해보지 않아 아쉽지 않았을까. 인생은 언제나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미련은 있지만 현재에 만족한다는 백부장. 그 대신 운동, 취미, 음악, 여행 등은 무조건 조금씩 한 번은 해 보자는 실천주의란다. 그래서 뭐든 호기심을 가지고 한 번씩 체험해 보았고 또 새로운 도전도 한다. 이제 인생관을 추적 해 볼 시간이다. 뜬금없이 영웅본색이라고 한다. 그 영화처럼 살고 싶은가?

“그게 아니구. 그 영화 제목이 ‘A better tomorrow’ 더 나은 내일입니다. 인생에서 최상이나 완전을 추구하기보다는 어제보다 좋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소박한 성취가 더 행복을 자아냅니다.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면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이 자기 걱정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몫은 4~5% 남짓입니다. 나머지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순리로서 받아 들이는 몫이 훨씬 많지요.” 백 부장의 말을 품질분야의 용어로 바꾼다면 ‘개선, 조치, 이행, 점검’이 될 것이다.

최근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란 책을 감명깊게 읽었다. 하지만 그가 평생 사랑하는 책은 어린왕자이다. 나이별, 시대별로 읽었지만 지금 보니 비로소 마음에 와 닿았다.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든 것일까? 어린왕자가 장미, 여우에게 하는 한 마디 한 마디 말들이 예쁘다고 한다. 지금이 여성 호르몬이 막 펌프질 할 무렵일까? 가수로서 아이유를 좋아하고, 드라마 주제를 자주 듣는다. 딸바보라 자처하였는데, 영화나 외식하면 딸이 아빠 팔짱 끼주는지 궁금했다. 간혹 그런다고 하니 이 점은 부럽다.

적성검사에서 이공계 50%, 문과계 50% 딱 반반 나온 케이스로 자신의 뜻을 한 번 펼쳐보는 경영자도 상상해 본다고 하였다. 업무적으로 제작, 시공, 설치, 운전 등의 품질보증 분야도 한 번 다루어 보기 원한다. 그러나 인생은 모든 길을 다 걸어가 볼 수 없다. 이상과 현실 차이를 경험으로 잘 아는 그이지만 자신만의 장미와 여우를 계속 만나고 있는지도..... E&C



에너지신사업본부 신사업개발처 해외개발팀

해외사업개발팀은 화력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해외 각국의 수요개발과 이를 통한 사업기회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새로운 수익구조를 모색하고 더 많은 해외시장 기회 참여를 위해 국내외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가나 지사를 통하여 현지 정보를 발빠르게 입수하고 해당국 및 주변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른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창훈 팀장

신사업개발처의 사업개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이다. 오랜 경험으로 폭넓은 실무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일 처리 능력으로 다양한 문제를 막힘없이 해결하여 소리없는 존재감이 크다. 넘치는 열정만큼 업무에 대해서는 카리스마가 넘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에 대한 자상함과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분으로 직원들이 자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



윤동규 차장

사업개발 단계에서의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계약부서에서 8년 간 해외 계약 업무를 수행한 경험으로 계약상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결하는 결론도출 능력이 뛰어나다. 김천으로 이주한 이후 여행의 매력에 빠져 주말마다 아이들과 다양한 지역과 맛집을 탐방하고 있으며 향후 가족과 함께 세계를 여행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김선영 대리

사업개발관련 자료 작성, 사업개발예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원자력본부에서는 사업행정 업무를 담당했으나 신사업개발처 해외사업개발팀에서는 초기의 사업개발 단계를 경험할 수 있어서 같은 해외사업을 다루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성실한 자세와 책임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끊임없이 배



우면서 업무 역량을 키우고 싶다. 9월에 복직하여 일과 가정 모두 열심히 챙기느라 여념이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종종 불금에 마시는 맥주에 소확행을 느낀다.



김근호 과장

지난 10년 동안 플랜트 배관 자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외사업개발팀에서는 사업수주현황 관리, 사업개발관련 문서작성 업무를 하고 있다. 팀에 합류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꼼꼼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능력을 보유하여 이미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일하자’는 사훈을 따라 새로운 업무를 배우며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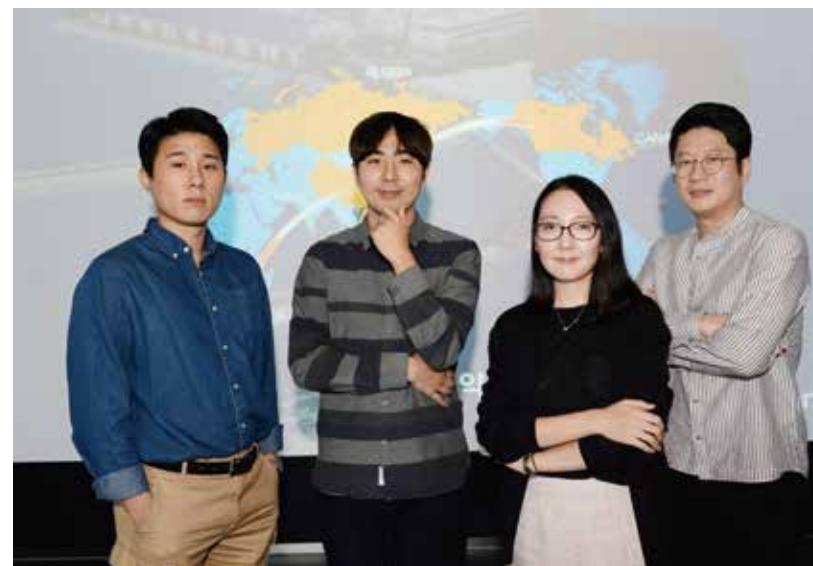
함정훈 과장

여러가지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숨은 공로자이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수많은 업무에도 성실한 자세와 책임감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외모로만 보면 낙천적이고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일 것 같지만 업무적인 면에서는 꼼꼼하고 스마트한 면이 다분하다. 해외사업개발의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로서 앞으로 플랜트를 세계 시장에서 이끌 인재로 성장해 가길 기대한다.



양정열 대리

해외개발팀에서 막내로 작년 5월 경영관리본부 노무복지팀에서 신사업개발처 해외개발팀으로 부임되어 해외사업개발팀의 사업개발 문서 제작, 사업개발 예산관리 등을 담당한다. 외모에서 풍겨지듯 똑 부러지는 업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업무 외적으로는 알면 알수록 넘치는 인간적인 매력에 유머까지 겸비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처럼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누구보다 열정적 직원이다. **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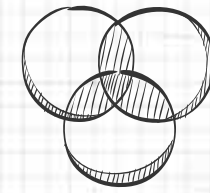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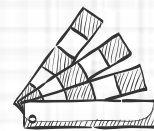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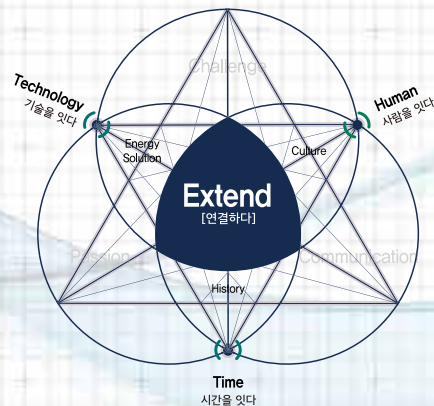




새로운 홍보전시물을 소개합니다!

우리회사 홍보전시관은 지난해 1월 공사에 착수하여 8월 준공되었다. 이 홍보전시관은 에너지 기술회사로서의 위상 제고와 정체성을 확립, 그리고 홍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전력산업 역사에서 회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우수한 기술력 홍보 및 미래 에너지산업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홍보전시관은 약 300m²의 공간에 영상, 이미지, 모형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홍보전시관은 크게 3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간은 우리회사의 역사, 현재 기술력 그리고 미래 개발 중인 기술을 보여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우리회사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은 이전 선배들이 우리나라 초기 에너지 산업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를 하였는지와 기술 자립을 위한 노력과 결실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준다. 더불어 차세대 원자로인 'APR1400' 설계와 관련하여 유럽사업자요건 인증 취득과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인증 취득 등 최근에 일구어 낸 성과도 전시하고 있다. 단순 이미지나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면영상관을 통해 관람객들이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가 어떻게 건설, 운영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영상으로 살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관람객의 흥미 유발을 위해 다양한 모형을 제작하여 전시 중에 있다. 'APR1400' 원자력 발전소, 1000MW 화력발전소, 스마트시티 등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관람객들에게 발전소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올해 9월 우리회사가 현재 개발중 기술과 부품 4가지 모형을 추가로 제작하여 배치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제어봉 모형, 사용후핵연료 운반 및 저장 CASK와 건식저장 CASK 모형, 그리고 캐나다 달링턴 발전소에 국내 최초로 중수로형 원자로 수출 부품 모형을 새롭게 전시했다. CASK 모형의 경우 '2020부 산국제원자력산업전'에 먼저 선보였고, 관람객과 원자력 유관업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게다가 10월부터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연료봉 모형을 추가로 제작하여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의 도전·열정·소통의 정신이 모여
기술과 사람 그리고 문화를 연결하다

EXTEND

[CAD 명명]연결되지 않은 객체를 다른 객체의 정의로 연결시키는 명령어



원자력 유관기관 및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모형과 다면영상 등 다양한 전시매체를 통해 우리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람객들이 회사의 역사와 기술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개선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회사가 새롭게 개발하고 추진 중 사업을 시각화하여 관람객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C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계속제어설계그룹 이영준 부장



그 동안 원설단 장기파견으로 인해 잊고 지냈던 분들과 소통의 기회가 되겠다 싶어 가족소개를 수락하였다. 대전 생활을 한지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강남에서의 직장생활이 그림다. 20여 년 전 대전 둔산동은 신시가지였지만, 20년을 살다보니 자연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고려하던 차에 뜻밖에 김천 SD 가동원전사업부에서 2016년 2월부터 근무하였다.

가족들과 상의는 했지만 김천으로 주거 이전은 쉽지 않아, 1년간 통근 후 이사를 결정했다. 아내는 마침 같은 아파트 단지 단짝 친구가 제천으로 이사하면서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 이사를 결정했다. 어딜가나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 금세 적응하는 것 같아 내심 고마웠다. 마침 구도심 교회를 다니는 이웃과 아파트 주변에 텃밭을 가꾸었고 이게 김천 생활의 맛을 알게 한 계기였다. 봄에 덕곡동에 있는 농자재 마트에서 생전 처음 샅과 호미, 계분 거름까지 사서 이른 봄 땅을 일구고 상추, 토마토, 오이,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신기하게도 잘 자랐다. 어모면에 계시는 분이 넓은 밭 두 이랑을 주어 거기엔 땅콩과 고구마도 심었다. 이랑이 50 미터가 넘어 심고 물 주는데 꽤 땀이 났다. 첫 가을에 수확하는 즐거움! 서투른 삽질로 고구마가 당강 잘려 나오기도 하고, 땅콩이 주렁주렁 매달려 나오는 걸 보며 흙이 주는 풍성한 수확의 소확행을 누렸다.

이런 맛을 아이들이 자랄 때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제 딸아이는 차도 녀가 되어 밭 이야기만 나와도 “엄마랑 같이 가세요~” 맨날 공부한다고 카페에 나간다. 항상 부모 곁을 안 떠나고 대전서는 집 근처 대학을 다녔고 김천에 오니까 혁신도시 이전기관에서 인턴생활을 하고 있다. 요즘 딸과 함께 출근하는 소소한 행복도 즐



겁다. 두 살 위 아들은 서울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아주 가끔 아쉬울 때나 전화가 온다. 이번 주말에 올 계획이었는데 여친과 약속 잡혔다고 또 핑크다. 아들은 주말마다 인천에서 드론을 날리러 다니곤 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여행 다니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영어, 중국어를 마스터하고 요즘 스페인어까지 공부해 국적불문하고 친구들이 많다.

애들이 다 떠나면 부부끼리 무슨 재미가 있을까? 부산사람인 아내는 대학 4학년 때 만나 장

거리 연애를 하다가 장교로 군입대 했는데 부대가 남한산성이 보이는 송파 신도시 자리였다. 제대를 1년 앞두고 영외 거주 하면서 고무신 꺾어 신을 틔를 주지 않고 결혼했다. 잠실 송파에서 작은 신혼집을 꾸렸다. 91년 전역과 동시에 한기에 입사하고 남양주에 조그만 서민 아파트를 사서 이주했다. 주말이면 청평, 양평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드라이브와 캠핑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그 시절이 우리 가족에겐 가장 기억에 남는다.

월성 2,3,4호기 PKG팀에서 목소리 큰 선배님께 전기설계를 전수받고 일하다 보니 현장근무 기회가 왔다. 내가 설계한 조명등과 스피커 등이 현장과 MCR에 그대로 설치되고 도면에 그린 선들이 전선관으로 벽을 따라 그대로 설치된 걸 바라볼 때 감탄사가 나왔다. 설계는 예술이야! 애인 모습 감상하듯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녔다. 주변 압기와 옥외변전소간 송전선 공사, 비상발전기, 고압차단기 설치공사 기술지원도 했다. 그 경험으로 건축전기기술사 자격도 취득했지만 지금도 아내한테는 항상 ‘당신 전기쟁이 맞아?’ 하는 소리를 듣는다. 사택은 신축 대우아파트였는데 경치가 좋았다. 아내는 직원 가족들과 함께 밥도 먹고 산에 도토리도 줍고, 아이들은 유치원 친구들과 개울에서 개구리도 잡으며 즐거운 때를 보냈다. 2년은 금새 지나갔다.

현장에서 시운전 원자로 계속제어 분야 기술지원을 한 인연으로 1998년부터 원설단에서 근무하였다. 그곳에서 IMF 시절도 지나며 인생 수업도 많이 했다. NSSS 설계는 발전소 트립과 관련된 분야라 에러 0%를 요구하므로 신중함이 필요했다. NSSS 전기설계를 하며 배운 게 많다. 발전소가 트립되어 기술적 대응에 진땀도 흘렸다.



살면서 내가 생각했던 데로 지금의 내가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다. 아직도 살날이 많으니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좋은 방향으로 살아야 함을 느낀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꿈꾼다. 언젠가 참 예수쟁이가 되어 있기를..... 이제는 SD 가동원전사업부에서 기계, 유체, 안전계통 설계변경업무와 한수원, A/E 코디네이션 업무까지 하려니 머리가 빠지다 못해 흰 머리가 다 생긴다. 퇴직 후 전 세계 여행다니는 게 꿈인데 체력이라도 길러야겠다. 아! 언제 운동하지.....

주말에는 아내와 인근의 산과 명소를 찾아 다닌다. 김천에 와서 맑은 공기와 신선한 농산물과 과일을 맛볼 수 있는 행복도 감사할만하다. 김천 생활은 우리 가족에겐 쉽표 같은 시간이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준 나의 일터에 감사하며 또 다른 출발을 향해 나아가야지!!! **E&C**



한전기술이 개발한 1000MWe급 중형 원전

APR 1000



APR1000은 국내외 건설 및 운영, 미원자력규제위원회(NRC) 및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등을 통해 입증된 APR1400, OPR1000, EU-APR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강화된 최신 국제 안전요건(IAEA/ WENRA)에 따라 안전성과 성능을 한층 더 강화한 3세대+(GEN III+) 노형으로 각국의 경제규모, 인구밀집도, 전력수요 등 다양한 여건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한 1000MWe급 중형 원전이다.



APR1000은 안전성 강화 설계로 이중원자로 건물, 4계열 안전계통, 피동보조급수계통(PAFS), 중대사고 대처 코아캐처 설비 등을 채택하여 안전기능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이중 원자로건물의 1차 원자로건물은 철재 라이너가 설치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로, 2차원자로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설계하고, 사고 시 두 외벽 사이의 환형공간내에 수집되는 방사성물질은 여과된 후 스택을 거쳐 대기로 방출한다. 4계열 안전계통 설계와 피동보조급수계통을 도입해 안전기능의 신뢰도를 APR1400보다 크게 향상시켰으며, 코아캐처는 중대사고로 용융된 원자로 노심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원자로 공동에 떨어진 노심용융물을 수집한 후 냉각시켜 원자로 건물 파손을 원천 방지한다.

강화된 유럽의 안전요건에 맞춰 사고 후 72시간 동안은 소내 고정형 설비만 사용하며, 7일까지는 소내 이동형 설비, 7일 이후에는 소외 설비를 사용한다. 또한, 설계기준을 초과해 설계기준사고 안전설비가 가용하지 않은 다중고장사고시 원자로를 안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다양성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극한외부 재해 시에도 그 기능을 보장한다.

부지 배치는 다중성(Redundancy), 다양성(Diversity), 물리적격리(Physical Separation) 원칙과 방사선방호(ALARA) 설계 원칙을 적용해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화 하고 항공기 충돌을 포함한 극한외부 재해 시에도 안전기능을 보장하도록 설계했다.

수출 대상 수요국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내륙부지에서 운영하도록 안전설비용 냉각계통에는 기계식 냉각탑을, 순환수계통에는 자연대류 냉각방식 냉각탑으로 설계하고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 설계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회사는 원전을 추진하는 체코, 폴란드 등의 유럽 국가와 사우디, 이집트 등의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요구하는 유럽사업자최신요건(EUR Rev.E) 인증 취득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2021년 6월 예정의 체코 입찰서 제출을 위하여 APR1000 설계 및 최적화를 하고 있다. APR1000은 안전하고 입증된 최신 원자력발전소를 원하는 고객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리라 기대한다. **E&C**

End Fitting Rings and Sleeves

캐나다 달링톤 원전 기자재 수출



<연합뉴스 제공>

달링톤 원전 End Fitting에 사용되는 해당부품들은 우리 회사의 설계 및 품질관리 능력과 선광테크윈의 제작기술을 통해 2015년 국내최초로 중수로(CANDU) 원자로 부품 수출 계약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달링톤 발전소 1, 2, 3호기 부품을 수출하였고 4호기 부품을 제작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클라링턴 시에 위치한 달링톤(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는 온타리오 주 최대 발전 회사인 온타리오전력청(OPG, Ontario Power Generation)이 운영하고 있으며, 1990년 10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달링톤 원전은 우리나라 월성 1호기와 같은 노형인 CANDU형 가압중수로(PHWR)이며, 현재 상업운전 중인 4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개 호기는 2016년부터 계속운전(Continued Operation)을 위한 사전 개보수 작업에 착수하여 3년간 약 128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11조원)를 투입한 설비 개선 작업 끝에 2호기가 상반기 고온기능시험 이후 임계에 도달해 전력 생산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원자로도 순차적으로 설비개선사업을 수행 중이다.

회사는 국내 원자력 관련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월성1호기 설비개선 사업 수행 경험과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작 능력을 토대로 달링톤 원전 설비 개선사업

에 참여하였다. 2015년 국내 최초의 중수로(CANDU) 부품 납품 계약을 시작으로, 중수로 연료관의 End Fitting에 사용되는 베어링슬리브, 저널링, 실딩슬리브 등의 부품을 납품하였다. 해당 부품들은 회사의 설계 및 품질관리 능력과 선광테크윈의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달링톤(Darlington) 1, 2, 3호기에 성공적으로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에 4호기 납품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 예정이다.

원전이 전력 수요의 약 15%를 담당하는 캐나다는 2033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9기 중 10기(달링턴 1~4호기, 브루스 3~8호기)에 대해 설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설비 개선사업은 신규건설 대비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발전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어 경제적 이점이 큰 것으로 평가한다. 회사는 캐나다 발전소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 및 달링턴 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통해 추가 수주는 물론 제3국의 중수로 설비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 계획이다.



아찔한 공중산책



정재호 PSA&PSR사업그룹 과장 / 아이폰 XS MAX

2020년 1월 스위스 그린델발트 지역을 여행할 때 케이블카를 타고 피르스트까지 올라갔다.
피르스트 정상에는 클리프워크(cliff walk)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으며 아래 절벽이 잘 보인다.
클리프워크 끝까지 걸어가면 도전에 성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사진은 다음 차레를 기다리는 뒷사람에게 부탁하면 된다.

공익신고를 촉진하고자 신문고함의 복채를 잡은 은발의 신사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패지수가 높다면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중국 등의 나라가 거론될 때가 있다. 간혹 중국 공산당 간부나 군 장성 부패 기사를 보면 과연 사실일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지하실의 금괴 몇 톤, 현찰 상자 수백 개 등 확인할 길은 없다. 대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중앙집권적 통제사회, 국왕이 정치에 관여하는 나라에서 다수 발견된다. 그것은 구조주의 관점으로 보면 구조적이다.

조선 시대에 암행어사와 신문고 제도가 있었다. 비밀감찰로 오리(汚吏)를 잡아내거나 어디 하소연할 때 없는 사람이 복을 올린다. 답답한 심정들이 그 시절 얼마나 풀렸을까? 미국 같은 선진국도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는 조직의 응징이 무서워 떠나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복을 올리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념과 진영 논리 배면에는 조직 원리가 작동한다. 일명 관료주의이다. 인간을 위해 탄생한 제도, 법, 조직은 언제나 인간 위에 군림한다는 게 역사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게 정말 맞는가 되묻고 외쳐야 한다. 공익신고는 흐르는 강물의 자정작용, 인체의 면역기능 회복 등으로 비유된다. 그런 물꼬를 트는 작업이 회사에서 진행 중이다. 포청천은 이마 초승달과 부처 귀로 유명했다. 공익신고를 촉진하고자 직소 신문고함의 복채를 손수 잡은 이는 정열의 빨간 셔츠에 산뜻한 은발 신사이다. 목소리 진폭은 중음대이며 즐겨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방에 넣고 다닌다. “못 삶은 혼자 공공대지 말고 어려움을 토하라” 지금 복을 울리며 재촉하는 이는 누구인가?

사진 속 주인공을 아시는 분은 rdh@kepc-enc.com으로 11월 30일까지 메일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다섯분께 커피 쿠폰(일만원)을 제공합니다.

불편한 낭만과 천국의 바다가 있는 곳 쿠바(Cuba)



친구와 마이애미 여행 계획을 세우던 2019년 초는 드라마 <남자친구>와 여행 예능 <트래블러>로 인해 한창 쿠바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던 시기였다. 이왕 마이애미까지 간 김에 키웨스트에서 헤밍웨이를 찾지 말고 쿠바로 가보자 결심했다. 다행히도 비슷한 여행 취향을 가진 친구 덕분에 3박 4일의 짧은 쿠바 여행을 일정에 넣을 수 있었다.



세계에 몇 남지 않은 공산국가, 냉전시대 문화를 여전히 간직한 나라 쿠바는 약간의 생소함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여행지다. 한국에서 직항편은 없지만 미국, 캐나다, 중남미 어디서든 연결 비행편을 예약할 수 있고, 탑승 전 체크인카운터 등에서 쿠바 비자 구입(탑승지역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후 입국이 가능하다.

호세마르티 국제공항에서 아바나 시내까지는 주로 택시로 이동하는데,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기사들과 목적지에 따라 흥정하는 일이 거북스럽다면 여행사 등을 통해 숙소까지 픽업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참고로 와이파이는 미리 선불카드를 구입해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쓸 수 있으므로,



미리 오프라인 지도와 목적지 주소 등을 준비해둬야 이동 시 급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아바나 시내 숙소로는 <트래블러>에서처럼 쿠바식 에어비앤비라 할 수 있는 CASA를 직접 보고 흥정하면서 현지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여행의 끝에 심신이 지쳐있고 와이파이와 치안, 편함에 돈을 아끼고 싶지 않다면 4성급 호텔도 생각해볼 만하다. 참고로 <남자친구>에 나온 '호텔 나시오날'은 1박 가격이 우리나라 고급호텔 못지 않게 비싸다.

아바나 투어는 주로 올드 아바나와 헤밍웨이의 자취를 만끽할 수 있는 오비스포 거리투어와 올드카를 타고 아바나 시내 명소를 둘러보는 투어가 유명하다. 센트럴 아바나 중앙 공원에서 시작되는 오비스포 거리 초입에는 헤밍웨이가 '다이끼리'를 즐겨마셨다던 엘 플로리디타(EL FLORIDITA)가 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모히토'를 즐겨마셨다던 보데기타 델 메디오(LA BODEGUITA DEL MEDIO)가 있다. 둘 다 럼 베이스에 과일주스 등을 첨가한 칵테일로 알코올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번쯤은 도전해볼 만큼 상쾌한 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다(헤밍웨이처럼 앉은자리에서 10잔을 마시면 당연히 취한다). 엘 플로리디타 바에 앉아 다이끼리를 마시고 있다가 운이 좋으면 흥겨운 밴드 연주와 춤을 감상할 수도 있다.



조금 더 걸어 오비스포 거리 끝에 다다르면, 헤밍웨이가 7년간 살면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집필했다던 암보스 문도스 호텔(HOTEL AMBOS MUNDOS)이 나온다. 헤밍웨이가 묵었던 방은 가볼 수 없었지만, 조용한 호텔 로비 한 켠에 앉아 피아노를 치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클래식한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오비스포 거리 곳곳은 화려한 색감의 외벽과 화단이 있는 건물들 사이에 도장이 벗겨진 허름한 벽돌 건물이 공존하고 있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과 생활을 이끌어가는 현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 쿠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사간다는 시가는 이곳에서 사면 좋다.



다시 중앙 공원 쪽으로 돌아오면 형형색색의 고풍스러운 올드카가 관광객들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 차에 대한 로망은 없지만 그 화려한 색감을 가진 클래식 오픈카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았다. 마음에 드는 차를 골라 시간(거리)에 따라 기사와 가격을 흥정하면 된다. 보통 1시간 이내 코스로 모로요새-말레콘 비치-혁명광장 등을 돌면서 주요 관광스팟에 내려주고 기사가 직접 사진도 찍어준다. 마침 소나기가 지나가고 햇살이 비추는 광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형광 연두색 차를 골라 탔다. 공기는 상쾌했고, 긴 해변가를 따라 달리는 차 안에서 바람을 맞으며 잠시 해방감도 느낄 수 있었다. 오픈된 채로 터널에 들어가서 매연을 바로 흡입하는 순간은 잠시 아찔하긴 했지만, 노래에 대한 흥 만큼이나 사진에 열정적이었던 기사님 덕분에 나름 인생사진도 건질 수 있었다. 아바나에 왔다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경험이다.

짧은 아바나 여행을 뒤로하고,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인 바라데로로 향했다. <트레블러>를 보고 무작정 1박은 해야겠다고 결심한 곳이다. 바라데로는 아바나에서 차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휴양지로, 넓고 잔잔한 카리브해 바닷가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고급 리조트(거의 대부분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다)들이 주욱 늘어서 있는 지역이다.

여긴 정말 천국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리조트라 그런지 속된 말로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다. 시설도 최고급 호텔 못지않고, 직원들도 여유가 넘치고 친절하다. 그리고 진정한 ‘캐리비안 베이’가, 표현 그대로 상아빛 고운 모래와 에메랄드빛 바다가 있다. 마이애미 사우스비치의 풍경에 많이 실망했던 터라 그 감동은 배가 되었다.



맑은 바다는 해가 질 때까지 따뜻했고, 아무리 걸어 들어가도 가슴높이를 넘지 않게 얇고 잔잔했다. 햇살이 뜨거울 땐 리조트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 무한대로 제공되는 음료를 마시며 쉬기도 하고, 늦은 오후에는 바닷가로 나가 따뜻한 바다를 즐겼다. 해가 질 무렵 해변가를 지키고 있는 직원에게 언제까지 바닷가에서 수영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가 웃으며 답하길 “All Night!”이라고(사실인지 확인은 안 해봤다).

올 인클루시브(all inclusive : 가격 포함) 리조트라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무한대로 제공되고, 낮에는 패션쇼와 버블파티를 저녁에는 다양한 공연도 해준다. 2박 이상을 묵으면 여러가지 액티비티 투어도 즐길 수 있다. 성인 전용, 가족 전용 등 다양한 종류의 리조트가 있으니 쿠바에 온다면 꼭 바라데로에서 2박 이상은 하고 가기를 권하고 싶다. 긴 여행의 끝에 천국의 바다를 만났지만 일정이 너무 짧아 아쉬웠고, 아쉬웠던 만큼 가장 깊은 여운이 남았던 여행지였다.

불편함과 낭만이 공존하는 곳,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의 최고봉인 천국의 리조트를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나라 쿠바에 다시 갈 수 있는 날을 기다려본다. 

칭찬합시다!!!



한국전력기술 김환식 차장/장재엽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수원에서 어려운 역무로 곤란을 겪고 있었지만 이 분들 도움으로 잘 마무리되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방법을 찾던 중 사보편집팀에 연락한다는 내용의 메일이 도착하였다.

어떤 사연인지 전후좌우 사정을 알아보자!!!

고리 2호기 기기냉각수 열교환기의 차압 성능이 기기 제작사가 제시한 설계값을 초과하여 원자력규제기관이 이를 지적하였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계통설계 기술용역을 통해 해당 열교환기의 현상사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기술 검토를 요청하였다.

유체계통분야에서 관련 기술 검토를 하였으나, 규제기관은 이에 대한 원설계사(Westinghouse社)의 3자 검증을 요구하였다. 이에 한수원은 3자 검증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회사는 웨스팅하우스와 3자 검증자문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계통설계 기술용역을 통해 자문결과의 타당성 검증 및 기존 기술 검토결과의 보완 업무를 수행하였다. 결국 우리 회사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기기냉각수 열교환기를 현상 사용하는 것으로 원안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한수원 담당자 조광래 대리는 김환식 차장과 장재엽 과장의 전문성과, 높은 책임감을 통해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수행되었다고 감사 편지를 다음과 같이 쓰게 되었다.



TO. 한국전력기술 사보 편집팀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조광래 대리입니다.

이번에 메일 쓰게 된 이유는, 한국전력기술에 보물 같은 분들이 계셔서 감사 글을 쓰기 위하여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KEPCO E&C 사보편집팀 메일 주소를 발견하였습니다!

감사 대상은 김환식 차장과 그의 파트너인 장재엽 과장입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분들은 해당분야 핵심 전문가입니다.

- FSAR 설계문서 개정을 위하여 KINS에 쟁쟁한 박사님들, 원안위 공무원들을 설득할 정도의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KINS와 마지막 설명회에서 보여주신 김환식 차장님의 설계 경험사례는 모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이에 FSAR 개정까지 순탄하게 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수원에서 가장 필요한 설계적 지식이 정말 깊고도 넓습니다. 제가 평생 배워도 따라갈 수 있을지 경외감이 들고, 이런 전문가분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2. 팀워크를 중시하고 협조적입니다.

- 규제기관의 시급한 답변 요청, 한수원의 기술적 질의 및 스테디, 해외 검증업무로 인한 웨스팅하우스 보고서 재검토 등을 기한 안에 최대한 답변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장재엽 과장님은 도중에 출산으로 잠시 떠나셨지만, 다시 긴급히 돌아오시는 모습이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가정이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아이가 첫째는 아닌 것이 분명할것 같습니다.ㅎㅎ)

3. 동료애가 있으며 희생적이며 책임감이 있습니다.

- 전 담당자의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떠안고 책임지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분들과 함께하여 프로젝트가 내내 순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From.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발전 조광래 대리

TO. 감사합니다. 조광래 대리님

조광래 대리님, 메일 감사드립니다.

해당 계통 및 기기의 설계자로서 사업주가 의도한 바 대로 역무가 마무리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아울러 해당계통의 설계 및 타 발전소에서 발생한 유사 문제 대응 경험에 본 역무 수행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입니다. 향후 한수원과 수행하게 될 타 역무들도 금번과 같이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From. 한국전력기술 김환식/장재엽 드림



영양과 맛의 조합 구내식당 영양사 박슬아(현대그린푸드)

사람들은 늘 입버릇처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 말한다. 진짜로 그런 일을 하는 박슬아 점장을 만났다. 식단을 짜고 영양 섭취를 관리하는 명함에는 한국전력기술/점장, 하단에 현대그린푸드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에 속하는 식품제공 업체이다. 80년대생의 앳된 얼굴에도 불구하고 경력은 10년 차이다. 김천 오기 전 울산의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 그리고 포항에서 근무하였다. 알고 보니 이 계열은 지역단위로 움직이고 영남식품사업부 소속으로 순환 근무중이다.

백인백색도 아니고 천인천미의 만족을 구하는 어불성설에 대해 단도직입으로 도대체 우리 직원이 좋아하는 식단 메뉴는 무얼까 물었다. “대체로 돈가스, 짜장면, 닭다리 백숙, 불고기류를 선호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 걸까? 직원 선택 여부와 잔반 처리량 등의 계량지표가 있는가 보다. 식단을 구성하는 원칙은 재료의 중복성, 양념과 조리법, 식자재의 조합으로

정해진다. 식자재는 현대그린푸드의 물류센터에서 거의 매일 주문으로 입고된다.

피치가 커브, 슬라이드, 체인지업 어떤 공을 던지는가, 공을 받는 캐처 입장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박슬아 영양사는 내심 ‘오리 도라지 뽕밥’이란 건강식 신메뉴를 최근 구



상하여 힘껏 던져 보았다. 그러나 기대만큼 반응은 별로였다. “하지만 함박스테이크와 수제떡갈비는 예상과 달리 반응이 좋았어요.” 자신의 식단이 잘 먹혀들 때 그녀는 기쁘다.

음식마다 조리법이 다르지만 조리하기 어려운 요리는 무엇일까? “단체 급식 특성상 국수나 우동, 스파게티 같은 면 종류는 다루기 힘들어요. 덜 익혀지거나 불어 터지거나 면의 질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곤란해요.” 불현듯 1980년대 농산훈련소 생각이 났다. 일요일 오전에만 라면이 나왔는데 라면 사리를 물에 끓이는 게 불가능하여 증기로 찌냈다. 그걸 라면 국물에 풀어내면 반꼬들 반아삭의 황홀한 식감이 났다. 조리실에서 면과 국물을 따로 처리하기에 이해는 갔다.

여러 기업 식사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해 보았을 터인데 우리 회사만의 특이점이 있을까? “울산, 포항에는 육체적 작업량이 상당한 근로직군이라 당연히 1인 배식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기술은 오피스직군으로 분류되는데, 여기 배식량도 의외로 엇비슷하게 나와요.” 하긴 식당에서 저걸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 식판에 탑을 쌓아 올리는 직원을 간혹 보

았다. 신기하게도 잔반량은 근로직군과 사무직군 평균이 같다. 많이 먹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파이팅!

휴가, 출장, 학회 참석 등으로 들쭉날쭉한 배식량, 잔반 처리가 궁극하였다. 준비한 식사량이 적어도 골치, 많아도 고민될 것 같다. “전체적으로 평균 식사 인원엔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잔반은 전량 처분합니다.” 요즘 코로나와 재택근무로 식당 이용률이 조금 낮아졌다고 한다. 사보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메뉴에 닭다리 구이 같은 정량배식이 있어요. 더 가져가지 말라고 야속하게 말하기도 어렵고..... 나머지 직원분들, 좋은 식사 품질, 잔반량을 고려하면 좀 참아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또 미안합니다. 그리고 식단에 불만 사항이 있으면 적극 의견을 주셔야 저희도 최대한 반영한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본인은 산채 비빔밥과 야채튀김, 회덮밥을 해달라고 청원을 넣었다. 현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대략 24명이 분투 중이다. 조리과 세척의 다수 인원, 영양사 2분, 사무원 1인, 음식의 양념과 간은 주로 조리식장이 맡는다.

박슬아 영양사는 대구가 고향이고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였다. 딸만 셋인 집 안에서 차녀이다. 동생과 일란성 쌍둥이라 하는데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3차원 홀로그램으로 보면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알아서 좋겠다고 농담하였더니 얼굴에 웃음만 가득하다. 취미로 요가, 필라테스를 즐겨한다. 맨날 음식으로 살다시피 하는데 영양사로서 최애 요리가 있는지 최후진술을 듣고 싶었다. “영양사가 되기 전 좋아하는 음식, 멀리하는 음식의 선호도가 확실히 있었어요. 그런데 총괄 하다 보니 어느새 ‘전천후 입맛’의 소유자가 되었답니다. 싫어하는 음식이 사라졌어요. 건강과 영양을 위해 백미보다는 귀리, 수수, 기장, 현미 잡곡밥을 드시고 매일 계란 같은 일정량의 단백질 꼭 챙겨 드세요!” **E&C**





[쥐 : 한 생존자의 이야기]

아우슈비츠! 유일한 탈출구는 가스실을 지나... 소각로의 굴뚝뿐,
그곳의 고난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인간성도 말살시키는 죽음의 수용소.



함께 읽어 볼만한 책



『사라진 타워의 그림자』 아트 슈피겔만 저

아트 슈피겔만이 911테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쥐 : 한 생존자의 이야기』에서 상처와 아픈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주변인들에 드리워진 비극을 잘 나타내었다면, 911테러를 겪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정신 상태와 트라우마에 대해 다룬 수작이다.



『맨발의 겐』 나카자와 케이지 저

원자폭탄 투사 이후 히로시마의 모습은 어땠을까? 연외마경을 경험한 원폭 피해자의 관점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이와 동조한 자들을 비판한 문제작이다.

『쥐 : 한 생존자의 이야기』는 1992년 만화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 ‘풀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아트 슈피겔만은 〈RAW〉라는 만화잡지에 1980년부터 1991년까지 11년에 걸쳐 이 작품을 연재하였고, 이 작품은 현재 한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작가는 액자식 전개를 통해 아버지가 겪은 고난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아버지와 작가 사이의 갈등을 담았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홀로코스트’지만 액자식 구조를 통해 보여주는 아버지와 일화들을 통해 전쟁세대와 전후세대 간 갈등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이 작품의 제목은 병을 옮기는 ‘쥐’로 유대인을 묘사한 제3제국의 프로파간다를 비꼰 것이다. 그리고 독일인을 고양이로 그려 쥐와 고양이라는 상징구조도 완성하였다. 세계 제2차대전 중 작가 슈피겔만의 아버지 블라덱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비겁한 짓을 하거나 비굴함을 감수하면서 살아남는다. 끔찍한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삶과 죽음과 고난이 블라덱의 관점에서 생생히 묘사된다. 하지만 이 작품이 단순히 작가의 ‘아버지에게 맺혀있는 피의 역사’를 서술하는 전기(傳記)라고만 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작가의 자서전이자 회고록이기도 하다.

작가는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그리기 위해 아버지를 인터뷰 하는 과정을 스토리에 녹여낸다. 그리고 아버지와 갈등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아버지는 ‘홀로코스트’로 인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주변사람들에게 괴로움만 주는 존재이다. 게다가 인종청소의 피해자였지만 흑인을 차별하고 주변인에게 히틀러라는 평을 들을 만큼 아내와 작가에게 강압적이고 못되게 군다. 게다가 자신이 보기 괴롭다는 이유로 사별한 부인이 아들에게 남긴 그녀의 일기장을 불태워 버린다. 그녀가 이 세상에 직접 남긴 마지막 기억의 조각을 없앴 아버지의 태도에 ‘살인자!’라고 힐난하면서도 아버지의 과거를 듣고 이해하고 이를 만화로 그려낸 계기는 작가가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한 발로였기 때문이었을까?



아버지가 경험한 아우슈비츠의 기억과 상처가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주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았을 때, 홀로코스트는 단지 홀로코스트 피해자와 그 후속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도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쟁과 압축적 고도 경제성장을 경험한 한국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전쟁과 가난의 세대 그리고 풍요와 번영의 세대는 서로 살아온 삶의 경로가 서로 상이하고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삶의 여정의 다름은 가치관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이는 혐오와 증오의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사회적 갈등의 구조적 형성이며,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하나의 충격으로 표현한다. ‘X세대’, ‘90년대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신인류의 출현과도 같이 묘사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들을 ‘라떼는 말이야’라며 끈대로 비꼬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이 작품은 세대 갈등에 대해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지만 이해의 가능성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쥐 : 한 생존자의 이야기』는 희생자의 증언을 기반으로 인류사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히 묘사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흥미를 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 희생자가 얻은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그 상처로 인해 주변인들과 그 다음세대가 겪는 아픔까지 담아내었다.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세대 간의 갈등과 그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홀로코스트’의 실상, 세대갈등 어디에 초점을 두어도 흥미로운 소재를 만화라는 매체로 흥미롭고도 진중하게 그려내고 있다. 만화의 특성상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볼만 하지만 그 내용과 여운은 그리 가볍지 않다. E&C

뉴에이지. 편안하고 경쾌하면서도 아름답다.

2014년 개봉한 ‘Begin Again’이라는 영화의 영어판 부제목은 “Can a song save your life?” 이다. 음악이 사람의 정서 및 감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해 준다. 실제로 힘들 때, 기쁠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을 컨트롤해 준 건 음악이다. 그 중에서도 뉴에이지 음악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뉴에이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했고 이는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 이외에도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마음을 차분히 하거나 깊은 생각이 필요할 때면 뉴에이지 음악을 자주 들었다.

처음 뉴에이지 음악을 접한 것은 이루마의 ‘River flows in you’ 라는 곡이었다. 중학교 시절에는 음악과목 수행평가로 피아노 연주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 듣는 곡에는 너무 좋아 이름을 물어보았다. 그때까지 피아노란 엄숙하고 딱딱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친근하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있는 줄 몰랐다. 그렇게 ‘뉴에이지’ 음악 세계에 빠져들었다.

물론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뉴에이지’ 라는 장르가 있는 줄은 알지 못했다. 그냥 ‘듣기 좋은 피아노 음악’ 이라고만 생각했다. 어릴 때 피아노를 치다 그만둔 이후 처음 듣는 피아노 음악이었지만 예전에 알던 베토벤, 쇼팽, 멘델스존보다 웅장함은 떨어져도 훨씬 편안하고 듣기 좋은 음악이었기에 이루마라는 작곡가에게 빠져들게 되었다. 그렇게 이루마의 대표곡들을 더 듣고 다양한 곡을 접하며 예전 피아노 음악과 다른 이런 느낌의 피아노 음악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게 되었고 결국 ‘뉴에이지’ 라는 답을 얻게 되었다.

뉴에이지음악 특성은 옛 음악들과는 다르게 편안하고 가볍다. 단순히 피아노만 활용하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과의 결합을 추구한다. 심지어는 가상악기까지 등장해 더욱 다채로운 색깔을 보여주는 음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웅장한 예전 피아노 음악과는 달리 슬픔, 기쁨 등을 극대화시켜 감성을 더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필자의 경우에는 복잡한 생각이 들 때 듣는



“다시 시작해 너를 빛나게 할 노래를!” - Begin Again 중 -

음악, 무엇인가에 집중 하고 싶을 때 듣는 음악, 활기찬 느낌을 내고 싶을 때 듣는 음악 등이 존재하고 플레이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뉴에이지 음악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공부를 하면서 피아노 음악을 듣게 된 건 수학 문제를 풀 때 피아노 음악이 도움이 되었던 학원 선생님의 말 때문이었다. 이왕 들을 거라면 관심이 있었던 뉴에이지 음악을 듣기로 했고 실제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Merry Christmas Mr. Lawrence (한글제목 : 전장의 크리스마스) 포스터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곡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Merry Christmas Mr Lawrence’ 였다. 도입부 자체가 아주 가볍고 조용하게 시작하여 서서히 강해지는 곡이다. 집중할 때, 외부 자극에 많이 노출되는 편이었는데, 조용하고 가벼운 곡으로 집중하게 해주어서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곡이 강해지는 뒷부분에서는 이미 집중도가 올라가 곡보다는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조용하게 생각하거나 사색에 잠기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추천하는 곡이다.



개봉 당시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는 OST CD

편안하고 가볍지만 결코 가벼운 느낌만 주는 것이 아닌 뉴에이지 음악의 특징은 등교 시간만 쉬는 시간에도 도움이 되었다. 매일 똑같이 공부하는 고3생활에서 나에게 달콤한 휴식 시간이자, 힐링의 역할을 해주었다. 그 때 들었던 가장 잊혀지지 않는 곡이 장세용의 “Shining the morning” 이다. 곡의 이름처럼 아침 햇살 같은 느낌이 나는 곡으로, 상쾌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곡이었다. 지금도 이 곡을 들으면 일어나기 힘든 아침에 이 곡을 들으며 활기차게 학교를 가던 모습이 생각이 난다. 여행을 떠나거나 축제를 즐기고 싶은 느낌이라면 이 곡을 들어보기 추천한다.

더운 여름이다. 유독 장마가 긴 여름이었고 그로 인해 축축 처지는 현상도 발생했다. 장마가 겨우 끝나니 늦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기운을 내고 더 활기차져야 한다. 뉴에이지 음악의 특징은 대부분의 감정과 생각에 잘 어울린다는 점이다. 마치 소금처럼 어떤 요리에 쓰여도 그 본연의 맛을 내며 전체적인 조화를 이뤄 그 맛을 돋구어 준다.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더 많은 뉴에이지 곡들이 존재한다. 조금은 색다르게 뉴에이지 음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 **EXC**

직지사 '부일식당' 산채정식

김천 정착 후, 맛집 찾아 한 바퀴 돈 동네로 배시내
돈육연탄구이, 지레면 흠돼지구이, 직지사 산채정식이
있었다. 탐색 차원의 호기심이 잦아들고 지금은 입맛 따라
움직이지만 직지사 산채정식은 최소 세 번 이상 직원이
다녀왔으리라 믿기에 '맛남'에서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
요리 자체보다 음식에 관한 상상과 문화로 풀어나가려 한다.

부일산채식당은 2대째 60년 전통 지킴이로 이곳 대표주자
이다. 관공서 리플렛이나 지역안내의 추천 식당으로 빠지지
않고 나온다. 직지사 식당 타운은 메뉴와 맛의 표준화가 완
료되어 식당마다 재료, 반찬, 맛의 차별성이 거의 없다. 패턴
과 표준화를 거부하는 재즈적 사고로 보면 감자전과 산채비
빔밥, 들깨칼국수와 보리밥, 젓갈류 반찬과 돌솥밥, 청국장과
고등어구이 조합 같은 선택 여지는 없다.



직지사 산채정식은 오십대 연령층이 특히 좋아한다. 다양한
반찬과 포만감을 중시하는 세대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손님
은 옅은 편이다. 한중일 구성에서 중국은 메인요리 중심이다
(중국집의 단품요리). 예를 들면, 큰 접시에 돼지볶음, 두부
조림이 식탁 가운데 놓이고 이걸 작은 밥공기에 들어먹는다.
일본 가정식 요리는 미니 밥상 또는 큰 도시락을 받는 느낌
으로 밥과 반찬이 오밀조밀 예쁘게 담겨 고급스럽다. 료칸이
나 호텔에서 먹으면 더 먹고 싶지만 항상 양이 적다. 제대로
한정식을 대접받았다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반찬이 깔
리고 굴비, 떡갈비, 불고기전골로 정점을 장식하는 쪽은 한
국이다. 원샷 서빙으로 반찬의 종류와 수로 압도한다.

가성비로 나무랄 수 없는 풍성한 반찬이 직지사 산채정식
코스의 장점이다. 하지만 반찬의 1/3은 구색을 갖추기 위한
엑스트라로 보인다. 유심히 관찰하면 젓가락은 70% 반찬에
만 쏠린다. 찌개와 국이 미드필더로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한국전쟁을 체험한 부모님 세대는 비지장과 시래기국을 맛
있게 드신다. 즉 세대별 입맛 차이가 존재하고 선수 선발은
사람마다 다르다.

부일산채식당에서 맛난 반찬은 감자튀김, 버섯 장아찌, 도토
리떡(간장을 살짝 발랐다), 마 샐러드, 조기구이, 부침개이다.
작은 옥수수처럼 생겨 마디마디 작은 결이 난 초절임 음식
은 땅콩과 식물로 '초석잠'이다. 누에를 닮았다고 지어진 이
름이다. 그 뿌리열매 맛이 아삭아삭 새콤하다. 산채나물은
양이 다소 적지만 맛있다. 김천 대부분 식당은 돼지불백 연



탄구이는 모두 적당한 맛을 내기에 합격권에 든다.

중국에서 밥이 투명한 환한 빛으로 빛나는 걸 딱 한 번 체감
한 적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최상급 쌀이 모두 넉죽 큰절을
올린다는 너른 만주벌판의 쌀로 지었다. 그쪽은 검은 거름더
미 흙에서 자란다. 일단 쌀은 빠고 밥은 '화력돌솥밥 - 전기
돌솥밥 - 공기밥' 순으로 맛있다. 1인분씩 7분~10분 밥 짓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확산 중이다.
부일산채식당도 이를 채택한 걸 보았다.

한정식을 크게 전통, 퓨전, 창의로 분류하자면 정원을 갖춘
고급 식당에서 보리굴비, 떡갈비, 신선로 등이 차려지면 일
단 가격대가 세다. 퓨전 한정식으로 청주의 '마중'이 유명한
데 맛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한정식을 재해석하여
서양 정찬 같은 느낌을 낸다.

창의는 작은 카페에서 내는 실험적 창작이다. 서양식 메뉴에

한식 식재료와 소스로 넣는다거나 반대로
한국요리를 바탕으로 서구의 옷을 입히기도 한다.

직지사 산채정식은 전통식에 가깝다. 가격에 견주어 찬이
다양하고 맛도 떨어지지 않고 푸짐하다. 멀리서 김천을 찾
아온 나이 조금 지긋하신 손님 접대로 추천한다. 식당가 뒤
편은 조각품과 조경을 구경하는 가벼운 산책코스 공원이 있
다. 젊은 층을 어떻게 유입하는가? 새로운 메뉴를 모색할 것
인가? 식당촌 가게마다 다양화를 시도하는 게 좋을까? 이런
저런 상상을 해 보았다. 이 동네는 고양이 많아 골목골목
돌며 안부를 물었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길가 세
마리 고양이가 한 식당 앞에 나란히 앉아 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그중 턱시도 고양이(얼굴이 흑백 반반으로 배트맨처럼
생겼다) 한 마리가 고개를 돌리며 '야옹' 인사한다. 집사는 어
디를 가도 고양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는 버릇이 있다. E&C

김천 향토 장인(토인) 부일산채식당 bu-il-sanchaesikdang 차림표 MENU	모듬산채한정식 (modum sanchaehanjeongsak) 8,000	산채비빔밥 (sanchaebibimbap) 8,000	해물파전 (haemulpajcon) 10,000	도토리묵 (dotorimuk) 8,000	메뉴추가 고기:8,000 생선:2,000
			더덕구이 (deodeokgu) 15,000	춘두부 (chondubu) 8,000	
			석쇠불고기 (seoksoebulgogi) 300g (100g당 5,000) 15,000	동동주 (dongdongju) 6,000	



500년 전통을 이어 온 문경의 대표주 호산춘

문경 호산춘(경북 무형문화재 18호)은 경북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백년 된 탕자나무와 글씨가 새겨진 바위 등으로 둘러싸인 장수 황씨 집안 종택(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36호)에서 황희 정승의 종부들에 의해 전해 오는 전통주다. 1991년 전통주 제조면허를 획득한 호산춘은 전통주 1세대로 당시 함께 면허를 딴 술로는 면천 두견주, 함양 국화주, 경주 법주, 한산 소곡주 등이 있다.



지역적으로는 문경과 익산에서 같은 이름의 술이 있는데 익산의 호산춘은 항아리 호(壺)를 쓰는데 문경의 호산춘도 이름은 같았으나 익산 호산춘과 구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위해 호수 호(湖)자를 사용했다. 보통 술 이름에는 주(酒)를 쓰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산사춘과 같이 춘(春)자가 붙는 춘주는 중국 당나라 때부터 맛과 향 등이 뛰어난 명주의 별칭으로 우리 술에도 춘자가 붙은 술로 호산춘 외에도 약산춘(서울), 벽향춘(평양) 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주도가 18도인 호산춘은 멥쌀, 찹쌀, 솔잎, 누룩, 물 다섯 가지 재료만으로 빚는 원액 청주로 쌀 한 되에 술 한 되 정도 나오는데 덧술단계에서 솔잎을 첨가해서 술향과 함께 점도가

높고 뒷맛이 진하고 부드럽다. 호산춘은 원래 3번(밑술, 덧술 2회)을 담가 삼양주였지만 이제는 현대화하여 두번(밑술, 덧술) 담가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이양주다.

이 술의 밑술은 멥쌀 백설기와 끓여 식힌 물, 그리고 누룩으로 빚으며 대략 2주 정도 발효시킨다. 덧술은 찹쌀과 분쇄한 솔잎을 함께 고두밥을 지어 밑술에 잘 비벼서 술을 만드는데, 대략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를 발효시킨다. 술 담그는 비법은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로 전통가양주 방식으로 이어 온 호산춘은 지금은 비교적 젊은 축인 전수조교 황수상 대표가 2014년에 신축된 년산 8,000병(700ml) 생산 술도가에서 제조하고 있다.

호산춘은 대대로 홍보하거나 내다 팔지 않는데도 문경지방에서는 오래 전부터 명성이 알려져 왔다. 이러한 명성으로 한때 국민 만찬주로 쓰였다고 호산춘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배달은 하지 않으니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라고 해서 직접 사가게 한 일화나 브랜드화 시켜 대량생산하자는 주류회사 제안을 거절한 적도 있다.

현재 호산춘은 택배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홍보를 하지 않다 보니 여전히 직접 찾는 이들이 더 많다. 문경 호산춘은 장수 황씨 종택과 제조장을 견학하는 2시간짜리 사전예약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문경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축 양조장 도착 전 800M에 앞서 언급한 장수 황씨 집안 종택이 있다. 상시 개방되어 있는 종택에는 400년 넘었다는 탕자나무가 볼만하다.

호산춘에서는 2018년 소주제조면허를 내고 호산춘을 증류한 소주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술의 이름은 화경(畵景)이며 3년을 숙성한 술을 25도와 50도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하고 있다. **E&C**

주 소 :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운달로 7 / 전 화 : 054)552-7036



자연을 완상하는 능력은 나이 따라간다. 젊은 시절 자연은 외부 풍경에 불과하다. 청춘은 쾌락과 재미를 찾아 쇼핑, 술집, 게임을 좋아하고 자연은 밋밋하거나 괜히 육체적으로 고달프다. 자연에 눈뜨는 시기가 대략 오십쯤이다. 호젓하고 오붓한 한갓진 곳을 찾는 나이는 명소나 관광지의 번잡을 피해 느리고 조용한 시간을 갖기 원한다. 속된 말로 사는 게 무덤덤해지면 무덤에 가까운 나이라고, 그래도 인생은 자궁에서 무덤으로 돌아간다(From Womb To Tomb)는 법칙은 변함없다.

자연은 맹목적 기계로 비유되기도 한다. 자연은 기어가 중립이고 그 자체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 그러기에 무표정이고 무심경이다. 그런데 자연에 동화되는 묘미는 무언가? 괜한 욕정이나 소망을 품기보다, 어설픈 긍정과 부정의 감정을 엮기보다 구름처럼, 나무처럼, 바람 부는대로 살라 한다. 물웅덩이에 고인 작고 푸른 하늘의 나즉함, 젖은 나뭇잎새 무늬, 황금빛 물드는 노을에 등실 댄 솜 구름, 숲속의 침묵 속에 바람 지나다니는 소리, 밤하늘을 떠다니는 흰 달과 별에 눈길을 주는 일이다. 이런 자연과의 접촉은 우주의 리듬과 운기에 주파수를 맞추어 준다.

국립 김천 치유의 숲이 지정된 이유를 단박에 알았다. 작은 계곡의 시냇물 소리가 은근히 속닥거리고 좌우로 드넓은 공간의 분지형이 완만한 경사도 부채꼴로 퍼져있다. 시야가 트여 시원하다. 국내에 산은 많지만 이런 지형은 많지 않다. 여기에 인간의 토목적 노력을 기울였다. 일단 치유의 숲을 상하좌우로 관통하는 데크로드(deck road), 바닥의 편편한 돌, 돌로 이루어진 응접 휴식터(돌탁자와 돌의자), 군데군데 정자, 연못을 꾸며 놓았다.

돌담장 틈새로 야기 다람쥐가 날아다닌다. 순간순간 모선이 빨라 축지술을 써는 듯 보인다. 딱따구리 새끼처럼 보이는 작은 새가 나뭇가지 앞뒤로 번갈아 가며 환영술을 선보인다. 새가 날지 않고 요상하게 뛰어다닌다. 아재시대 사람은 중2학년 교과서에서 다람쥐를 squirrel로 배웠는데, 정작 미국가서 보니 squirrel은 뒤룩뒤룩 살이 찐 청설모였다. 다람쥐는 chipmunk라 부른다. 이 줄무늬 다람쥐는 어렵던 시절 전 세계에 수출되어 한국경제 부흥의 종자돈이 되었다.

자작나무는 보름달이 뜬 날이나 눈이 가득 쌓인 날 보아야 제격이다. 나무가 희기 때문이다. ‘희다’는 조선족에게 신령한 빛으로 통했다. 희미한 흰빛이 감도는 자작나무를 타고 하늘에서 그 분이 내려오셨다. 인간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신화는 상승이지만 우리는 신령한 존재가 내려오는 하강을 좋아한다. 흰빛은 불꽃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오키나와 전설에 따르면 신화(神火)는 하늘에서 내려와 장독대 뚜껑 같은 단지에 받아 모셨다(아무런 탈 것이 없는데도 타오르는 불꽃은 아무래도 신비하다). 모세가 본 떨기나무 사이 일렁이는 불꽃도 그러하다. 흰 자작나무는 하늘을 잇는 통로인 셈이다. 치유의 숲에서 신목(神木)을 보았으니 오늘 할 일은 마쳤다.

하산하는 길, 수도암을 들렀다. 암(庵)이란 큰 본채의 작은 암자를 가늠했는데 대사찰 크기라 놀랐다. 호리병 모양으로 둘러싼 숲에서 검은색 광택을 반짝이는 까마귀가 글라이더 급속체처럼 빛나게 날아다녔다. 대개 사찰은 좀 자연적으로 어수선하다. 청암사와 수도암은 비구니 승려가 관리하는 덕분인지 사찰이 정갈하고 깨끗하여 산뜻함을 준다. 특이한 것은 금동불상이 아닌 화강암 부처를 본당 안에 모셨다. 당신의 돌얼굴과 돌손을 친견했습니다.

김천은 물이 좋다는 수도산이 아니라 도를 닦는 수도산이다. 지리산에 풀어놓은 반달곰이 수도산을 찾아오다가 자동차 사고로 입원한 안타까운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곰아, 너 왜 자꾸 이 산에 오니?” 곰이 말하기를 “웅녀 찾으려구~“ 치유의 숲은 어린 자녀를 두었다면 여름철, 사는 게 필경 쓸쓸해진다는 걸 깨달은 분은 눈이 온 겨울철에 추천해 본다. **E&C**

다람쥐가 뛰어노는 국립 김천 치유의 숲



많은 이들이 아직 국립 김천치유의 숲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특히 트레킹 코스로 좋다는 직원 추천을 받아 취재하였다. 산림은 2016년~2018년 3년 정도 조성하였고 최근에 ‘국립 김천 치유의 숲’으로 지정, 개방되었다. 초행길이라 마땅한 주차장을 찾지 못해 헤매었다. 아래턱 공영주차장 안내에 여기에 주차하고 산림복지 관리센터는 장애인 주차만 가능하다고 적시 되었지만 다행히 관리센터 30여 미터 아래 10대 정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

어디서 들깨 향이 진동하여 둘러보니 들깨를 다발로 묶어 작대기로 밭에서 두드리며 털고 있다. 2층 관리센터에서 외길처럼 보이는 우측 길을 선택하여 땀을 비질거리며 15분 정도 올랐다가 뒤따르는 산행객이 ‘그 길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내려와 확인해 보니 관리센터 뒷마당이 시작점이다.



세일종합기술공사

세일종합기술공사는 항만 및 해안 전문분야에서 수십 년간 많은 경험을 쌓은 유능한 기술 인력들을(현재는 기술사 51명, 박사 6명 등, 전문기술자가 310명이며, 총인원 340명의 직원으로 구성)보유하고 있다. 1988년 1월 주식회사 세일종합기술공사를 설립하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과학기술처에 등록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감리 전문회사 및 공공측량업 등록, 교통영향평가 대행업, 재해영향평가 대행업,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 해외건설업 신고, 전력 전문설계업-1종, 안전진단기관등록(교량 및 터널분야, 항만 분야), 지하 안전진단 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등 건설 부문 엔지니어링 분야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항만 및 해안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연구진을 구성, 항만 및 해안개발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호순 회장



그간 국내 기업들은 정부에서 주장한 국토개발 정책 부분에서 주요 국가시책 중의 하나인 국토의 지역적 균형발전, 국토이용의 효율화, 국토확장의 일환으로 꾸준한 국토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 내륙공단 개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대규모의 임해 공업단지 조성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세계 경제 선진국들의 경제구역 개편에 따른 진보적인 경제정세에 대처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만 시설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가 적극 유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업구조의 방향 전환과 항만시설을 이용한 공업단지에 대한 선호 경향의 임해 지향적 패턴으로의 변환 등, 국가시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임해 공업단지의 개발 및 이에 관련된 업무에 주력한 결과 짧은 기간에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많은 프로젝트를 계약하여 기업의 이익 창출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상기 과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정부투자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그룹에서 발주한 대규모 공업단지를 계획 수립하여, 현지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 실시한 대규모 프로젝트로는 삼성종합석유화학의 그룹전용공단 (약 90만 평), 대죽지구 공업단지(약 65만 평), 한보철강공업의 당진 아산만 철강공단 (약 80만 평), 및 S-OIL 항만시설,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삼성토탈 등, 전국 각 지역의 주요 항만에 분포한 항만시설 등 조사, 설계, 감리업무를 수행 준공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한 항만시설(접안시설, 외각 시설)에 대한 계획, 설계는 물론 모든 대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최근 발주한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비롯하여 평택항 동부두 실시설계, 전국무역항 기본계획(1차~4차), 울릉공항 기본설계를 수행하였고, 제주 해군기지를 비롯한 최근 군항에 관련된 10여건 이상과 어항 관련 30여건 이상을 참여 수행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 발주한 대안입찰 및 턴키방식에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공동 참여하여 제주 외항 서방파제,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 공사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해양수산부 및 해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건설사와 공동 참여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에 있다.



또한, 한전기술의 토목 분야 협력회사로서 한울 3~6호기 송수전설비개선 용역 등 가동원전 분야와 신보령 1, 2호기 접안 시설 등 플랜트 분야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신규 복합 화력 및 LNG 발전소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와 제주 한림 해상 풍력발전단지 하부기초설계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세일종합기술공사는 ENG 분야에 기술발전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함을 물론, 타사가 보유하지 못한 축적된 Know-How를 바탕으로 기술인으로서의 지식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기업의 이익 창출 및 항만분야의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도에 금탑산업훈장을 수상 받았다.

세일종합기술공사의 이호순 회장님 이하 전 임직원은 자기개발과 부단한 노력으로 전문기술인으로 거듭 날것이며, 토목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창조적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C

교양

규칙없음

리드 헤이스팅스, 에린 마이어 지음 | 2020년 9월 8일 출간 | 25,000원



통제와 규정은, 무능력한 직원들에게나 필요한 것!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켜 ‘포스트 잡스’로 불리는 리드 헤이스팅스는 넷플릭스의 성공 비결로, 그들의 ‘자유와 책임 문화’를 꼽는다. 넷플릭스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시간이 없다. 휴가와 경비에 관한 규정, 결재 승인 절차도 없다. 말단 직원도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해, 수십 억짜리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다. 규칙이 없다는 게 규칙인 셈. 대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책은 실제 넷플릭스 전현직 직원의 사례를 재료로 주장을 이어간다.

과학

물질의 물리학

한정훈 지음 | 2020년 9월 25일 출간 | 값 15,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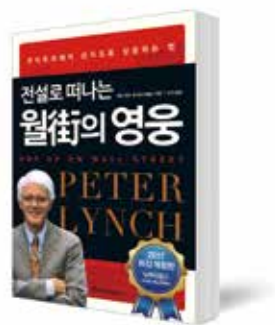
모든 물질은 양자 물질이다. 우리의 몸과 빛조차도! 질량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빛도 물질인가? 자석은 왜 자석인가? 왜 어떤 물질은 전기를 통하고 다른 물질은 그러지 못하는가? 2차원, 1차원 물질도 있는가? 도대체 ‘물질’이란 무엇

인가? ‘물질의 물리학’은 물리학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탐구해가는 과정에서 발견된 그래핀, 초전도체, 양자 홀 물질, 위상 물질 등 기묘한 물질들의 세계를 탁월한 스토리텔링과 독창적인 비유로 직관적으로 자세하게 풀어낸 책이다.

경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 지음 | 2017년 4월 17일 출간 | 23,000원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라! 피터 린치, 워런 버핏과 더불어 살아 있는 월스트리트의 전설로 통하는 투자자. 마젤란 펀드를 13년간 운용하여, 연평균 수익률 29.2%로 초기에 비해 660배인 140억 달러 규모로 성

장시켰다. 그런 그가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1989년 출간했던 책. 월스트리트에서 투자 귀재로 승승장구하던 그가 돌연 은퇴한 후 저술한 책으로 자서전 형식을 띠면서 주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투자 지침서이기도 하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를 살피는 것은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 주주 지향 경영의 중요한 지침이다.

문학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레몬심리 지음 | 2020년 6월 30일 출간 | 값 14,000원



기분에 따라 행동하다 손해 보는 당신을 위한 심리 수업 사무실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하는 한 사람이 있다. 출근하면 서부터 ‘나 오늘 건드리면 가만 안뉘...’ 경고를 온몸으로 뿜어낸다. 다른 직원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이 사람의 오늘 기

분에 따라 사무실은 온탕과 냉탕을 오간다. 왜 자기 선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안 좋은 기분으로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걸까? 이 책은 기분을 잘 다스리지 못해 기어이 못난 태도를 보여주고 마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기분에 조종당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심리에 대해 주로 이야기 한다.

YouTube

슈카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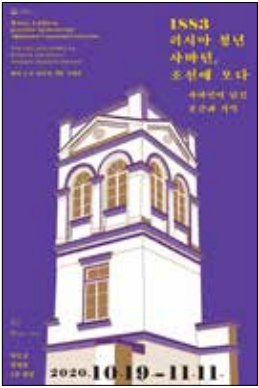


딱딱하고 지루하기 쉬운 경제, 시사 뉴스에서 매주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알아 듣기 쉬우면서도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낸다. 주제와 깊이에 비해 무려 유튜브 분류는 코미디. 대학 입학 후 매일 아침 피시방으로 출근했던 진성 게임 페인 생활 10년의 내공이 드러나는 애드립의 향연이 펼쳐진다. 그럼에도 그는 수능 100위권,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다만 학점은... 32살의 나이에 우여곡절을 겪고 증권사에 입사하여 살아남기 위한 경험을 통해 면접과 직장생활에 대한 꿀팁도 방출한다.

전시

1883 러시아 청년 사바틴, 조선에 오다

덕수궁 중명전 2층, 카카오 비대면 갤러리, 유튜브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특별전, 사바틴이 남긴 공간과 기억 러시아 청년 사바틴은 을미사변의 현장을 목격했으며 아관파천의 배경인 러시아공사관 건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1883년 인천해관 직원으로 조선에 입국하여 1904년 조선을 떠날 때까지 근대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을 맡아 우리 근대 건축사에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다. 이번 전시는 사바틴의 생애와 활동을 조명하여, 근대기 한국과 러시아 문화교류, 근현대 한국 건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기록과 이야기를 담았다. 청명한 가을하늘, 양국의 친선과 우호를 도모하는 전시로 여러분을 안내한다.

영화

테슬라

2020년 10월 개봉예정 | 마이클 알메레이다 감독 | 11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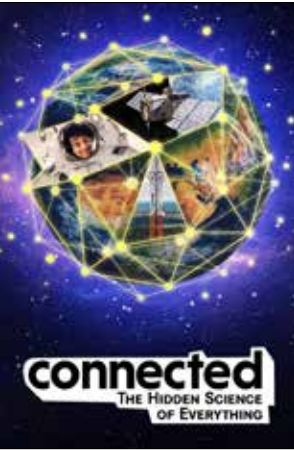
“내 업적과 성과는 미래에서 평가 받을 것이다.” 니콜라 테슬라는 교류 전류 전송 시스템으로 에디슨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쥔다. 하지만 작은 승리로 만족할 수 없었던 테슬라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위대한 발명에 착수한다. 그의 발명은 다름아닌 빛, 에너지 정보를

전 세계에 무선으로 전송하는 혁신적인 기술. 막대한 연구비가 필요한 그는 최고의 자본가인 J.P.모건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콜로라도 연구소에서 하늘로 번개를 쏘아 올리는 연구를 시작하였다.

다큐

커넥티드: 세상을 잇는 과학

2020 | 넷플릭스 등 방영 중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클라우드의 접점 지구와 우주를 보는 패러다임을 바꿀시간. 핵폭탄부터 구름까지, 세상 만물을 잇는 놀라운 비밀이 드러난다.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감시기술, 과거의 비밀이자 현재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대책인 배설물, 사하라에서 아마존으로 이어지는 먼지의 위대한 여정도 살펴본다. 과학기자 라티프 나세르가 진행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독자와의 수다 사보 뒷풀이

올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중 아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4차원이 무얼까 궁금하여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영국인 수학자 펜 로즈의 불가능한 물체(impossible objects)와 만났습니다. 구글을 이미지 검색하면 여러 모양의 조각, 물건, 그림들이 나옵니다. 펜로즈를 만난 사람은 작은 키에 둥근 얼굴, 이상한 눈빛을 가진 사람으로 꼭 요정이나 외계인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극대세계와 양자역학의 극미세계는 공존합니다. 그런데 두 세계의 물리법칙이 서로 연결되는 고리를 아무도 모릅니다. 펜 로즈는 모순적 두 세계의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1차원 존재는 2차원의 면을, 2차원 존재는 3차원의 높이를 모릅니다. 3차원 존재가 2차원 존재에게 위나 아래를 보라면 그는 앞이나 뒤만 바라봅니다. 차원이 무엇일까요? 고차원은 저차원을 포함하지만 저차원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론물리학자들은 이 우주는 12차원, 24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는 소리겠지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차원이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 현실은 달리 보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은 늘 은유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몇 차원에 사시나요? 평소 4차원에 산다는 소리를 듣는 분이라면 꼭 연락주세요! 다음 호에 색다른 차원의 기사 나갑니다.

돌발퀴즈

해양 원전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우리회사와 대우조선O양이 9월 24일 체결하였다. 최근 증산면 수도산에 ‘국립 김천 O유의 숲’이 지정되어 다양한 산림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현재 ‘국제O융합실험로(ITER)’ 건설관리용역 2단계 사업이 올해 8월부터 진행 중이다.

응모방법

‘O’에 들어가는 총 3자의 글자를 정답으로 적어 **2020년 11월 30일까지** rdh@kepco-enc. com으로 독자의견, 이달의 한컷을 보내주신 독자들께는 각 5인을 추천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참여 안내

11/12월호를 읽고 좋았던 기사나 부족했던 기사등에 대한 독자의견, 명사추천, 읽고 싶은 콘텐츠, 서클소개, 취미생활, 직원가족 추천, 맛집/전통주 추천, 영화평, 시, 수필, 공트, 소설, 사진 등 제한없는 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원고를 받습니다. 보내 주신 의견이 채택될 경우 소정의 기념품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 돌발퀴즈 : 도서문화상품권 2만원

- 윤재성 (기계배관기술실 부장)
- 노미진 (경영혁신실 차장)
- 김유환 (원자로안전점검실 부장)
- 박두리 (전기계측기술실 대리)
- 이재라 (기술전략실 인턴사원)

◆ 이달의 한컷! : 커피쿠폰 1만원

- 고경민 (유체계통설계그룹 차장)
- 정재호 (PSA&PSR사업그룹 과장)
- 주기훈 (토건환경기술실 사원)
- 임혜인 (원자력기술실 대리)
- 백설아 (사외독자)

◆ 독자의견 :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

- 김경태 (기술전략실 차장)
- 김태진 (원자력사업관리실 부장)
- 윤민아 (원자력사업관리실 처장)
- 이청하 (원전안전센터 대리)
- 전기홍 (사외독자)

지난호 사보를 읽고(독자의견)



● 사보 속 사진 주인공 사진이 인상 깊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들을 바라보시는 눈웃음 속에서 애정이 흘러 넘치고 있는게 정말 잘 보입니다. 아빠랑 매일 등원하는 길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번 사보에서 가장 오래 시선이 멈췄던 콘텐츠였습니다. 사보에 읽을 거리가 많아져서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PSA & PSR 사업그룹 홍승기 사원)

● 사보가 예전보다 짜임새가 있으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팀 열정이 보기 좋습니다. ‘부산기행 : 산복도로 마을’과 ‘금정산성 막걸리’에 콘텐츠가 매우 유익했습니다. 다만 ‘부산기행(도시탐방)’, ‘직지사역 기차카페(한번 가보고 싶은 곳)’은 하나의 테마로 묶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익는 마을 : 우리 술을 찾아 갑니다’의 경우 관심있는 직원도 참여 해서 견학과 시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전략실 기술관리팀 김경태 차장)

● 사보가 예전보다 구성이 더욱 알차고 풍부해졌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어도 아는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데 사보를 한장 한장 넘기면서 반가운 얼굴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고 ‘요즘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김천에 내려온 지 5년이 넘었지만 직지사역에 예쁜 기차카페가 있는 줄 몰랐는데 아끼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듯 하여 코로나 때문에 멀리 여행가지 못하는데 가까운 곳에서 구경하며 힐링할 겸 구경 한번 가 봐야겠습니다. 사보 콘텐츠에 사내부부 인터뷰 릴레이를 연재해보면 어떨까요. 사내부부의 좋은 점을 알려 회사 내 미혼남녀들의 꿈을 회사 내에서 같이 이루어가면 좋을 듯 합니다. (원자력사업관리실 사업운영팀 윤민아 차장)

● 가족탐방, 한번 가보고 싶은 곳 등 각 콘텐츠마다 흥미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소개로 더욱 더 풍성한 콘텐츠로 더해 갔으면 합니다. (기술전략실 기술정보팀 조성호 부장)

● 결연마을 소개 잘 보았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이 김천으로 본사가 이전한 지도 이제 5년이 넘었는데 그간 소외되고 어려웠던 지역주민들에게 농촌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장터,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 등 든든한 후원자로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사보를 통해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모범사례를 잘 보여 주십시오.(유재범 사외독자)



● 사보 전면개편 이후 정말 사보는 이래야 할 정도로 내용이 충실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의료원장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대구 병원 코로나 사투를 보긴 했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실감했고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위해 애쓰는 분이 있어서 큰 걱정없이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나의 취미, Shall we meet? 퇴직을 앞두고 직원참여 마당, 이달의 한컷, 결연마을 협력회사 소개 등 한기직원 가족의 다양하고 생생한 모습을 잘 그려내 주고 있어서 홍보팀의 노고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역의 숨은 명소나 맛집, 인사 소개가 추가된다면 사보가 더욱 알차게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사업관리실 사업운영팀 김태진 부장)

● 최장권 부장님을 소개한 ‘나의 취미 : ‘농장을 가꾸며’를 읽고 주말농장에 꼭 빠져 계신 아버지와 함께 미래를 생각해 보았다. 개인주의로 딱딱해진 마음과 정보전쟁에서 정신없는 요즈음 안정되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해 줄 것 같았다. 다양한 인생을 보며 나의 미래를 좀 더 다채롭게 그려볼 수 있어서 좋았다. (기계배관기술실 최영환 대리)

● 수행업무뿐만 아니라 지역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 사보를 읽다 보면 객관적인 내용과 주관적인 생각이 혼재되어 있어서 저자의 실명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목차를 회사, 지역, 직원 순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의 회사 이미지 부각을 위해 회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될만한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게재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원전안전센터 이정하 대리)

● 한국전력기술을 잘 몰랐는데 사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는 공기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임감사 청렴 반부패 신고장려 캠페인, 공공기관 합동 청렴시민감사관회의, 벨기에 트렉터벨사와의 워크숍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업적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전력기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보리라 다짐해 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테마가 다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내소식 보다는 사외소식 비율을 늘려서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후반부에는 생활/문화 면과 서민들이 살아가는 정겹고 아름다운 이야기. 독자 참여공간 등을 넣어서 좀더 친근감이 드는 사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기홍 사외독자)